

## 지엠 창원공장, 누적생산 500만대 돌파

##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도 창원서”

스파크, 美 시장수출 유일 국산경차  
우수한 제품생산 역량 해외 전파  
대규모 투자·도장공장 신축 등 진전

한국지엠주식회사가 17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창원공장 완성차 누적 생산 500만대 돌파’를 축하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지난 1991년부터 경차 생산을 시작한 이래, 30년 넘게 경차 전문 생산 공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창원공장에서는 현재 국내 대표 경승용차인 쉐보레 스파크와 국내 유일 경승용차인 다마스 및 라보가 생산되고 있다. 창원공장은 친환경 및 경제성으로 인정 받는 경차의 꾸준한 인기 속에 2009년 300만대, 2014년 400만대 누적 생산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월부터 총 500만대 생산을 돌파했다.



카허 카젠펙 한국지엠 사장이 창원공장에서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특히 쉐보레 스파크는 미국 시장조사 기관인 JD 파워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차량내구성평가’에서 미국 내 경차 부문 1위를 기록하며 국산 경차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스파크는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유일한 국산 경차로 창원공장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제품 생산 역량을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카젠펙 사장은 “창원공장 완성차 누적 생산 500만대 돌파는 회사와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창원공장은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도장공장 신축 등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창원공장에서 생산될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과 함께 계속해서 팀의 역량을 입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볼보코리아, 年 판매 1만대 돌파

## ‘젊고 역동적’... 3040세대 비중 72%

연초부터 월 1000대 이상 판매 기록  
네트워크 확장·대기시간 단축 투자

스웨덴 브랜드인 볼보가 지난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XC40, XC60, XC90으로 구성된 XC레인지 인기에 힘입어 ‘1만대 클럽’에 가입했다. 올해도 연초부터 월 1000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며 기분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지난해 전년 대비 24.0% 증가한 1만570대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한국 진출 이후 최초로 연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국내 수입차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6.1%)을 기록한 가운데 달성한 것으로 8년 연속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의미하는 결과다.

특히 SUV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프리미엄 중형 크로스오버, 신형 크로스컨트리(V60)와 국내에서 가장 경쟁



볼보자동차코리아 분당 서비스센터 직원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이 치열한 프리미엄 중형 세단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모델, 신형 S60의 성공적인 안착은 젊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럭셔리 브랜드로의 자리매김을 이끌고 있다. 실제 지난해 판매에 있어서도 볼보자동차는 전년 대비 개인 판매가 27.6% 증가한 가운데 20대(41.4%), 30대(36.4%), 40대(23.%) 순으로 젊은 층의 선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 판매 중 304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

은 무려 71.9%에 달한다.

이에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올해 서비스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서비스 네트워크 25% 확장 및 고객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대학의 자동차학과와 연계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인 ‘어프렌티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인재 육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 “신규 가입하고 게이밍 노트북 받으세요”

SKB 고객센터·홈페이지 통해 이벤트  
가입 상품에 따라 에어팟 등 추가 증정

SK브로드밴드는 내달 말까지 새 학기를 맞아 고객센터 106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기가인터넷과 ‘B tv All’, 인공지능(AI) 셋톱박스를 동시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 중 106번째, 1060번째 이용자에게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HP Omen15)을 증정한다.

광랜 인터넷과 ‘B tv Lite’를 동시에 가입하는 모든 신규 가입자는 ‘겨울왕국2’의 소장용 주문형비디오(VOD) 쿠폰과 한정판 겨울왕국2 캐릭터 카드를 준다. 동일 상품에 신규 가입자 중 선착순 2020명에게는 올라프 인형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가입 상품에 따라 신규 이용자 대상으로 ▲에어팟 프로 3세대 ▲갤럭시 S5e 64G ▲필립스 55인치 UHD TV ▲삼성전자 43인치 FHD TV ▲백화점 상품권 등 다섯 가지 중 한 가



모델들이 새학기 맞이 신규가입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지 경품을 추가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SK브로드밴드 공식 홈페이지의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코로나19’ 확산에 스마트폰 공장도 멈춰

## 中 1분기 시장 20% 급감

中 공장 2월말까지 정상가동 어려워  
글로벌 시장 전년 동기비 5~6% 감소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한 때 스마트폰 공장이 멈추기까지 했다. 공장 재가동을 하긴 했지만 2월 말까지는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된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의 1분기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매출에서 중국 시장의 매출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오프라인 매출 의존도가 큰 오포와 비보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내 매장을 닫으면서 오프라인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예정되어 있던 아이폰 SE2는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카운터포인트는 내다봤다. 지난달 28일 2분기 수익 예상치를 630억~670억 달러로 잡은 애플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

다.

일부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제조 공장이 우한과 후베이 지역에 위치해 있어 부품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1분기 글로벌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내 기업도 타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에서 제조되는 스마트폰 부품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베트남으로 운송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정부가 육상노선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일일 운송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돌아오는 트럭 운전기사들에 대한 검역도 실시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체 스마트폰의 3분의 2를 베트남 박닌과 타이응우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제품 공급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을 출시했고, ‘갤럭시 S20’ 시리즈는 내달 6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베트남에서 중저가 스마트폰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LG전자도 비슷한 상황이다. LG전자의 현지 관계자는 “아직까지 베트남에서 재고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지만, 위기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서윤기자 yuni2514@r

## “명품 분리막으로 글로벌 1위 기업 도약”

노재석 SK 아이이테크놀로지 사장  
스키노 뉴스 인터뷰서 전략·포부 밝혀

노재석 SK 아이이테크놀로지 사장(사진)이 ‘분리막의 명품화’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노재석 SK 아이이테크놀로지 사장은 18일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뉴스 전문 채널 스키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선도 기술 기반 ‘명품 분리막’으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 사장은 “우리 경쟁력의 핵심은 빠르게 생산을 하면서도 남들이 흉내내



기 어려운 고품질 분리막을 만드는 것이다. 일명 ‘분리막의 명품 전략’이라며 “SK 아이이테크놀로지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분리막 시장을 개척하고 리딩해, 고품질 분리막을 필요로 하는 전 세계 모든 업체들이 사용하고 싶은 명품 분리막 제조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KT-대우건설,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KT는 대우건설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물 견본주택을 폐관하고 클라우드 CDN 기반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클라우드 CDN은 트래픽을 분산해 영화, 방송, 게임 등 대용량 콘텐츠를 최상의 경로로 전달하는 기술이다. KT는 2006년부터 게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및 온라인 강좌 교육기관 등에 클라우드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평형을 선택 후 3D로 촬영된 주택의 내부 모습을 360도로 돌려가며 실감형

으로 체험하도록 해 고용량의 서비스 제공환경이 필수적이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매교역 푸르지오 SK 뷰’를 시작으로 지난 14일부터 오픈했다.

KT와 대우건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대규모 동시 접속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KT 클라우드 CDN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KT 클라우드 CDN을 사용하면 최대 2GB의 대용량 데이터를 10기가비트 초속(Gbps)의 대역폭으로 즉시 서비스를 할 수 있어 많은 접속자가 몰려도 끊김 없는 3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